

2018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제4회 코리안 시즌

2018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진출 협력사업

FAQ

Q1. 협력사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난타’, ‘점프’, ‘카르마(무무)’, ‘비밥(Chef!)’, 국수호의 ‘코리안 드럼’, 토리노동계올림픽 오프닝공연 ‘카타클로’, ‘하이킥’, ‘타고’, ‘셰프’ 등의 한국공연을 성공적으로 해외에 유치한 프로젝트팀의 컨설팅과 에든버러 최고의 공연장 어셈블리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Q2. 어셈블리 공연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 온 극장이자, 프린지 최고의 극장이란 명성과 함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어셈블리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내의 22개 공연장에서 자체적으로 Assembly Festival을 진행하며, 연극, 코메디, 카바레, 무용, 음악 공연 등 200여편 이상의 다양한 공연물을 선보이며 유명 코메디언을 키워낸 극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공연으로는 1999년과 2000년 ‘난타’와 2005년과 2006년 ‘점프’, 2010년 ‘비밥(CHEF)’과 2011년 국수호의 ‘코리안 드럼’ 등을 상연한 바 있으며, 성공적인 프린지 공연과 해외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한 극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린지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4개의 극장(Big 4)를 연계하여 프린지 페스티벌 내의 ‘코메디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장 프로그램북’과 ‘Big 4 프로그램북’을 60만부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어셈블리는 에든버러의 랜드마크인 Assemblyhall(국회의사당)을 메인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Q3. 협력사업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어셈블리 공연 상연기회: 에든버러의 360여개 공연장 중 최고라는 명성을 가진 어셈블리는 공연선별작업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2015년부터 에이투비즈와의 협약으로 코리안시즌을 진행하며 매년 협약된 수의 한국공연을 공동선정방식으로 상연하게 되었습니다.
- 통합 홍보/마케팅: 코리안시즌에 선정된 공연팀의 자료를 모아 현지 On/Off-line 홍보/마케팅을 진행합니다.
- 기본 장비: 공연장 내의 기본 장비 사용 (공연별 추가장비 불포함)
- 전략 컨설팅: 전문인력의 공연별 현지 홍보/마케팅 전략 컨설팅
- 축제 등록, 공연장 등록 업무 등 행정 자문
- 그 밖의 사전 업무(항공, 운송, 숙박, 현지 일정 관리 등) 및 현지 진행 컨설팅

Q4. 공연단체(기획/제작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항공 및 운송 : 선정 후 국제교류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업무를 지원합니다. 1차적으로 공연단체에서 기본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지 체재비 (숙박, 식사 및 예비비)
- 축제등록비 및 AD비용
- 공식 프로그램북 등록 및 AD비용
- 개별 홍보/마케팅비용 (선정 후 컨설팅 진행)
- 대관료: 기본 20% Deposit + Ticket Sales 쉐어 (or 기본대관료 납부)

※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 이메일(info@atobiz.co.kr) 또는 본사 홈페이지 (www.atobiz.co.kr)내 'Contact us'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